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7월 16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35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박영해 -

저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신앙 생활을 하기 전에 복음 전도자를 무조건 배척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귀찮게 여기고 찾아올 때마다 ‘그만 찾아오라’며 물리치곤 하였습니다. 힘겹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교만했던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도하는 말을 걸으로는 듣는 등 마는 등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내심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열어나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구역예배에도 참석하여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그동안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며 지내온 시간들이 심히 후회가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그 후 전능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신 은혜로 오늘 이 순간까지 인생길에 다가온 크고 작은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가지 난제를 해결하고, 또 시간이 지나 다른 문제를 만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기이한 방법으로 섭리해 주셔서 문제를 잘 해결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들려 주신 비유인 ‘불의한 재판관과 강성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설교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신 일들이 마치 어제 겪은 일처럼 하나 둘 떠오르며 추억이 되었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

하여 응답 받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남편이 매물로 나온 집 중에서 마음에 든 집을 찾았다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나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갔던 남편이 풀이 죽어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집 구경도 제대로 못한 채 돌아온 것입니다.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인근 다른 중개사무소에도 가서 매입 가격을 깎아보려고 무리하게 흥정을 하다가 쫓겨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며칠 후 남편이 그 집을 찾아가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꼭 이 집을 사고 싶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돈이 부족하지 않다면 당장 구입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저녁에, 그리고 다음 날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남편이 그 집에 들어가 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의 형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웬지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처음 갔던 중개업소에 다시 한번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무척 들뜬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처음 제시 받은 가격보다 15%가 싼 가격으로 계약이 성사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그러한 계약이 가능했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며, 이상한 일이 다 있다고 하였습니다. 뒤늦게 집 주인이 해약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므로 계약한 대로 저희가 그 집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부동산 소개일을 해오는 중에 이런 계약을 하기는 처음이라고 했던 중개업소 사장님은 그 후로도 한동안 우리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신기해하였다고 합니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저희 부부를 도와 섭리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집 주인과 중개인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하자 집안 형편을 생각하여 장학금을 꼭 받게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모든 과목마다 좋은 성적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다만 아들이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고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과목 시험을 치른 후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니, 이번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경쟁하는 학생이 과목마다 만점을 받았는데 저는 몇 문제를 틀렸거든요”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엄마는 포기 안 할 테니 너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마지막 과목 시험에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크고 작은 실수를 한 반면에 아들은 실수 없이 만점을 받으므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 결과로, 주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

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아들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무릎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MRI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전에 허리 부위에 크게 골절상을 당한 적이 있으시죠?”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은 있지만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무슨 말을 하십니까? 여기 화면을 보세요. 허리 중심 부분에 이렇게 큰 흉터가 있는데 당할 뻔 했더니요” 하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잠깐 놀랐다가 “그렇다면 그 때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 주셨네요.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목사님께서 신유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시거든요”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는 간호사와 함께 몹시 놀라워 하던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그 오래 전에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물의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몸이 뒤로 ‘뿡’ 뚫다가 아래층 계단 모서리 손잡이 부위에 허리가 먼저 부딪히며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신기하게도 저의 몸이 줄에 빨래를 널은 모양으로 반으로 접혔다가 다시 반듯한 모양으로 펴져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아, 하나님 아버지!”하고 탄식하면서 속으로 ‘이제 큰일났다. 내 허리뼈가 크게 부서졌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걱정은 잠시, 스스로 일어나서 어디가 얼마나 다쳤나 살펴보니 몸의 어디에서도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바깥 일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 이후로도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그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유의 은혜를 평생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딸이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집에 오기 전날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대형 화재가 날 뻔했던 일, 주택을 재건축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 문제가 생겨 전문 기술자들도 어찌지 못하는 상황 등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고를 막고 또 해결을 받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이 간증문을 쓰면서 제가 한없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천국시민이 되는 자격과 신분을 얻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저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극히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영생과 앞으로 체험하게 될 부활에 관하여 성경과 설교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3서 1:2).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 받는 즐거움을 누리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1권 (제2단원 : 죄지는 인간의 실상) (제5과) 최초의 살인

- 본문 : 창세기 4:1-16
- 요절 :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창 4:4)
- 찬송 : 351장(새찬송가 321장), 361장(새찬송가 327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자 아담의 가정에는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인간관계 대신에 시기, 질투, 미움 등으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의 가정에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며 아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에서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형제 살상의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에 어찌하여 이처럼 엄청난 비극이 있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므로 자기가 땀 흘려 농사 지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양 치는 자였던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벨은 여자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의 예시와 가족움을 지어 입히신 그 뜻에 순종하여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린 반면에,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저주받은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농사지어 수확한 소산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고 말씀하신 대로 죄 지은 인간은 속죄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벨은 자신의 죄인 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제사를 드린 반면에, 가인은 교만한 마음으로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히 11:4).

자기의 제물이 하나님께 열납되지 못한 가인은 아우에 대한 질투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가인은 안색이 변할 정도로 몹시 분해하였으며 그 후 그들이 들에 함께 있을 때에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후 그 원죄가 아들 가인에게 유전된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죄 지은 후 통회하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라고 고백하였듯이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죄의 뿌리 때문에 항상 범죄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창 4:9)고

물으셨으나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창 4:9)하고 오히려 시치미를 떼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창 4:11,12)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가인에게 공흠을 베푸사 표를 주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제도로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죄의 은총과 화해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열납하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 드러진 제사는 한 번 밖에는 효력이 없어서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반복하여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 그 피를 의지함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엡 5:2)

한편,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성도가 드리는 예배로 상징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시 51:17)이므로,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골 3:16,17)

셋째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합니다.(히 11:6).

넷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롬 12:1,2)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인양 : 인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인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